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어떻게 해야 KOSPI가 힘을 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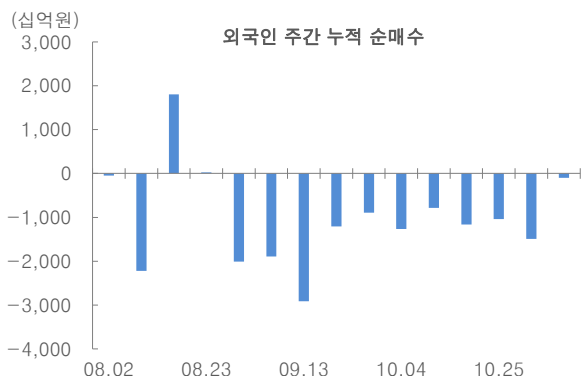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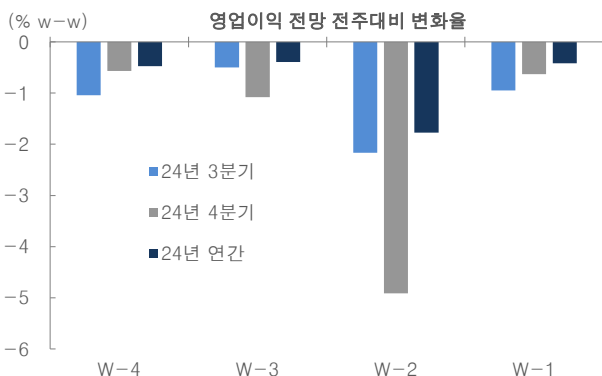
- 트럼프 기대/리스크 선반영, 11월 FOMC 이후 정상화 국면 진입
- 채권금리/달러화 레벨다운.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중국, 일본 증시 반등
- KOSPI 실적/수급 불안 해소 필요. 11월 둘째주 이후 분위기 반전 예상

미국 대선은 트럼프 당선으로 결정되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일거에 반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등락을 보였지만, 11월 FOMC를 통해 변곡점을 맞았다.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중립금리를 향하는 금리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임을 명확히 해주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물가 상승압력으로 인해 25년 금리인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진정시켜주었다. 4.4%를 향해가던 미국채 10년물은 하락반전했고, 105p를 넘어섰던 달러화도 104p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답한 “정책 변경의 시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 결정 직후 채권/외환시장은 물론, 증시도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언급해왔던 정책과 공약이 모두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움직이는 듯 하다. 하지만,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떻게 미지수이다. 투자심리와 금융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 또는 리스크를 선반영했다고 본다. 기대와 우려,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미국 증시 사상최고치 행진 중이고, 중국 증시는 상승반전했고, 일본 증시도 반등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SPI는 제자리 걸음이다. KOSPI 2,600선 회복마저 여전히 벅겁다. 무엇이 문제일까? KOSPI 실적과 수급을 들 수 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통과했지만, 4분기, 24년 연간 실적 전망은 하향조정 중이다. 외국인 수급 개선도 미약하다. 다행히 실적 전망 하향조정 폭은 찾아들고 있고, 외국인 매도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KOSPI는 2,550선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방압력 완화가 KOSPI 분위기 반전, 반등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이후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 실적 시즌 종료와 함께 실적 전망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면 12개월 선행 EPS는 상승반전할 수 있다. 수급 변수는 채권금리/달러 안정 속에 11월 옵션 만기(11월 14일) 이후 11월 계절성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KOSPI는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점이다. 멀지 않은 시점에 동이 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하향조정 정점 통과, 외국인 순매도 규모 축소. 11 월 둘째주 이후 선행 EPS 상승, 외국인 수급 개선 예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